

경북도-랴오닝성 통상교류 강화

우호도시 교류 협정 체결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도가 중국 랴오닝성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 양 지역간 통상교류 확대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양 지역 간 교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했고, 향후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격상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이 지사의 방문이 이뤄졌다.

협정서에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 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담아 경제적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양 지역의 교류가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시기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와 다롄시가 경북도에 구조물품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와 리러청 중국 랴오닝성 성장이 지난 15일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을 보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보탤 것이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으로 동북 3성 GRDP의 50%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가 랴오닝성 다롄시에 소재한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또 동북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위해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은 "양 지역이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생 발전하고 우정이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랴오닝성과 통상 교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한·중 지방정부 간 모범적인 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한방산업 재도약 노력"...상생발전협의회 출범

대구 중구청·경북 영천시 등 전국 5대 특화 지자체 협업 체계 구축

대구 중구청과 경북 영천시청을 비롯한 전국 5대 한방산업 특화 지방자치단체가 16일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청에서는 류규하 중구청장과 최기문 영천시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김창규 제천시청장, 이승화 산청군수 등 5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병식 (사)약령시보존위원회 이사장과 한방산업 관계기관장들도 동석해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단체장과 기관장들은 이 자리에서 △한방산업 지원체계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현안 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약연구원과 한방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이나 국가·지자체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닷새 동안 개최되



전국 5대 한방산업 특화 지방자치단체가 16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등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방 관련 축제와 박람회에는 공동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한방상품 판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각 지역 한방특구를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구 중구는 약령시 일대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한의약박물관과 한방의료체험타운 등을 담은 약령시 홍보리플렛을 제작하고, 경관조

명을 포함한 시설물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한방산업 특화 시·군·구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한방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대구약령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jiv8820@kyongbuk.com



경북도 부단체장 회의가 16일 도청에서 일선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다.

도·시·군 쌍방향 토론회로 정책집행 실행력 확보 한몫

경북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

경북지역 일선 지자체 부단체장들이 16일 도청에서 모여 도정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일방전달식의 회의를 탈피, 일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도청에서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쌍방향 토론회로 진행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나왔으며 핵심안건, 대면·서면·협조안건, 건의 사항으로 구분해 핵심 안건에 대한 집중 토론회로 도·시·군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집행의 실행력 확보에 도움을 줬다.

핵심 안건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 대전환(K-Citizen First)' 추진 상황

점검으로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 풍수해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도 추진계획과 시군 대응 상황에 관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특징인 야간재난, 산간지형, 고령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총괄적인 재난대응체계의 조기 안착으로 도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이어 도·시군 정책방향 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조안건 논의에서는 도의 저출생과 경쟁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6대 분야, 100대 과제가 시군 현장에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중앙정부 정책이 시군에 공유 확산하기 위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

속 조치, 지방 물가 안정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중앙정부-도-시·군 간 정부 정책 및 도정방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핵심 안건에 대한 양방향 토론회를 개최해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연결·소통·협력을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 경북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시군 정책 방향 공유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 아젠더를 공동으로 발굴, 지방주도의 정책확산을 위한 창업기형 플랫폼 정부인 경북도 K-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연결·소통·협력의 지방정부 시스템 대전환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원 기자 kw@kyongbuk.com

구미시, 다자녀 가정 선호도 높은 '온나눔 사업' 대상 확대

3자녀→2자녀...이용자 증가 기대

구미시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온나눔' 사업 대상 확대를 저출생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온나눔'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취약계층·다자녀 가정에 무상으로 공유·대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온나눔'사업 대상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저출생을 극복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자녀(3자녀)가정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호응도가

높아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편의증진을 위해 승합차 1대를 추가해 현재 6대를 운영 중에 있고, 성묘, 명절 등 수요가 많을 때는 차량을 더 배치해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저출생 극복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내달부터 기존 취약계층을 포함해 다자녀(3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면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온나눔 사업은 취약

계층 등 교통약자들과 대가족들이 가져행·성묘·이사 등에 차량을 렌트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현재 243회에 977명의 시민들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온나눔 사업이 취약계층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편리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이용현황 및 수요를 고려해 이용 가능 차량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포항·경주·울산' 해오름동맹, 대한민국 '新 성장 거점' 도약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 추진
경제·해양 등 5대 분야 36개 사업

포항·경주·울산 3개 도시가 수도권과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16일 포항시와 경주시에 따르면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은 경제·산업·해양, 교통기반 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체계 및 제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을 담고 있다. 5대 분야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단일 경제권 형성 △동일 생활권·경제권으로

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 연계 △기능적·물리적 관광 연계성 강화 △재난·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간 지능형 협력체계 구축 △해오름동맹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마련 등이 골자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초광역 공동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의 밑도있는 추진으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 간 연계협력의 강화와 더 나아가 해오름동맹이 초광역 상생모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

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생활권역으로 묶인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의 행정협의체다.

동맹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산업·연구개발(R&D) 분야, 문화·관광·교류 분야, 도시기반(인프라) 분야, 농·축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성을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울산연구원·경북연구원을 통해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연구'를 추진한 결과, 6개 분야 부분별 발전 전략 도출 및 47개 사업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푸드테크기반 외식업 디지털패키지 전환' 사업 추진

개선 의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포항시,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포항시는 지난 15일 포항시의회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푸드테크기반 외식업 디지털패키지 전환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푸드테크 기반 플랫폼 보급 및 율해 주요 외식업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진행했다. 외식업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관련 유관기관 아울러 F&B 솔루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함께했다.

율해 포항시에서는 푸드테크 기반으로 한 다양한 외식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주방환경개선사업 △

경영혁신외식서비스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디지털전환사업이다.

주방환경 개선사업은 지원금액이 지난해 대비 135만 원 상향된 400만 원이며 대상자는 식품접객업소 100 개소로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지난해와 달리 청소년 관련 사업에 편의시설 구축 및 미래지향서비스 사업이 추가됐다.

경영혁신외식서비스는 포항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선정한 컨설팅업체 아울러 F&B 솔루션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경영·매뉴 개발·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한다.

외식업소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의지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며 컨설팅 진행 후 만족도 및 성과 조사결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디지털전환 사업은 경상북도-아울러-경제진흥원의 MOU체결을 통해 진행되며 푸드테크 기기도입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진행 후, 업소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모집공고는 추후 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2024년 진행되는 외식업 디지털패키지 전환사업을 통한 외식업거리 활성화 및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혁신도시로의 발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1면 '글로벌대학 30...'서 계속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본 지정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 검토하며 공동연수·컨설팅 등 다양한 방

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65개 혁신기획서에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혁신·실행 계획서가 공개돼 다양한 혁신 전략들이 공유·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대학 혁신기획서들이 다양한 구상을 담겼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해 혁신 계획에 반영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부총리는 "이번 글로벌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